

울산어문논집 제13·14합집 (1999.11.30) pp.109~134.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문학사적 의의\*

—『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역옹쾌설(櫟翁稗說)』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 경 신\*\*

### 1. 서론(序論)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은 성종 8년(1477년) 서거정(徐居正: 세종 2년(1420년)~성종 19년(1488년))이 지은 설화문학서로<sup>1)</sup> 순수 소화집(純粹笑話集)에 해당하는데, 초간본이 간행된 것은 대체로 성종 13년(1482년) 무렵일 것으로 짐작된다.<sup>2)</sup> 강희맹(姜希孟)의 「골계전서(滑稽傳叙)」에

\* 이 논문은 1998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거정(徐居正)의 「태평한화골계전서(太平閑話滑稽傳序)」에 “창용(蒼龍) 정유년(丁酉年) 칠월(七月) 칠일(七日) 은거하는 늙은이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강중(剛仲)이 쓰다[蒼龍丁酉重七四佳老隱徐居正剛仲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유년은 성종(成宗) 8년(1477년)이다.

네 권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본래는 네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한 듯한데, 전질(全帙)은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이본(異本)으로는 낙질(落帙)인 판본 한 종류[만송본(晚松本)]와 필사본 네 종류[순암본(順庵本)·일사본(一簋本)·민자본(民資本)·백영본(白影本)<sup>3)</sup>]가 있고, 참조할 수 있는 기타 자료로는 권별(權讐)의 『해동잡록(海東雜錄)』, 허봉(許鈞)의 『해동야언(海東野言)』,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 성현(成僕)의 『용재총화(慵齋叢話)』, 『문종실록(文宗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등이 있는데, 이를 자료들을 대조하여 현재 재구(再構)가 가능한 화수(話數)는 총 271화에 이른다.<sup>4)</sup>

『태평한화골계전』은 우리 문학사에서 ‘골계전(滑稽傳)’임을 표방하고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대규모 독립된 저술에 해당한다는 일차적 의의가 있고, 구비문학적으로는 조선초기의 대표적 문헌설화집이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그 문학사적 의의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이 책의 전질이 현재 원형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일차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문헌들을 대조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재구한 자료집이 이루어진만큼, 비록 그 원형대로의 모습은 못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평

- 
- 2) 양성지(梁誠之)의 「동국글계전서(東國滑稽傳序)」에 “성화(成化) 십팔년(十八年) 여름 5월에 놀재노인(訥齋老人) 남원(南原) 양성지(梁誠之)는 서(序)한다[成化紀元之十八年夏五訥齋老人南原梁誠之序]”라고 하고, 강희맹(姜希孟)의 「골계전서(滑稽傳叙)」에 “용운(龍運) 임인년(壬寅年) 오월(五月) 상순(上旬)에 진산(晋山) 운송거사(雲松居士) 강희맹(姜希孟) 경순(景醇)은 사숙당(私淑堂)에서 쓴대[龍運壬寅仲夏上浣晋山雲松居士姜希孟景醇書于私淑堂]”라고 했는데, 이 성화(成化) 18년이나, 임인년(壬寅年)은 성종(成宗) 13년, 서기로는 1482년에 해당한다.
  - 3) 이들 중 순암본(順庵本)과 백영본(白影本)은 한지(韓紙)에 붓으로 쓴 필사본이고, 일사본(一簋本)과 민자본(民資本)은 프린트본이다.
  - 4) 박경신, 『대교·역주(對校·譯註)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1·2권)』, 국학자료원, 1998. 이 두 권의 책은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모든 이본(異本)들과 관계자료들을 대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어로 번역·주석한 것이다.

가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태평한화골계전』의 국문학사적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크게는 우리 문학사 전체의 흐름에서 이러한 골계전(滑稽傳)이 차지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태평한화골계전』을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서거정에 의해서 조선 전기에 이 책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 책이 후대의 소화집(笑話集)들에 미친 영향도 검토되어야 할 작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체제, 소재, 내용, 표현 등도 다른 소화집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본고의 제한된 지면으로는 이를 다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른 작업들은 후고로 미루고,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소화(笑話)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우리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살피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서거정에 의해서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사의 큰 흐름 속에서 전대의 문학적 성과와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골계(滑稽)’에 대한 인식이 쌍트고, 성장하고, 결실을 거두게 된 우리 소화문학사(笑話文學史)의 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평한화골계전』의 의의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소화사(笑話史)의 전체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서<sup>5)</sup>가 최근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는 이에 힘입은 바 크다. 구체적인 논의의 진행과정에서는 ‘골계(滑稽)’라는 용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골계전’이라는 독립된 책의 제목으로까지 떠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소화(笑話)에 대한 인식이 전대(前代)의 문헌들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것이 『태평한화골계전』에 어떤 영향을 주

5) 황인덕, 『한국기록소화사론』, 대화사, 1999.

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게 될 것인데, 비교검토의 대상이 되는 문헌들은 고려(高麗) 후기의 문집들인 『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역옹페설(櫟翁稗說)』이다.

## 2.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과 『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역옹페설(櫟翁稗說)』의 관계

서거정(徐居正)의 『태평한화골계전』은 순수 식자소화집(識者笑話集)<sup>6)</sup>이다. 소화(笑話)로 분류되기에 곤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당대의 지식인층인 사대부들 사이에서 지어지고 향수된 우스운 이야기들인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고 즐기는 우스운 이야기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인상적인 것들은 기록에 남아 문헌으로 후대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태평한화골계전』은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태평한화골계전』 이전에도 이러한 식자소화가 실려있는 문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후기의 문헌들인 『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역옹페설(櫟翁稗說)』 등에도 이런 유(類)의 이야기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소화집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선 그 기본 성격이 『태평한화골계전』과는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식자소화(識者笑話)라는 용어는 박경신이 사용한 것인데, 이는 그 향수계층을 중심으로 설정한 용어이다(『徐居正의 설화문학』, 『徐居正 文學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277~278면). 이에 대해 황인덕(黃仁德)은 '기록소화(記錄笑話)'라는 용어를 사용했다(황인덕, 앞의 책).

&lt;1&gt;

서호(西湖)의 스님인 혜소(惠素)는 내외전(內外典)에 해박했다. 더욱이 시(詩)에 공교하고, 필적 또한 뛰어난 편이었다. 항상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스승으로 삼겨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국사(國師)께서 승과(僧科)에 응시하도록 권하자, 대답해서 말하기를 “제가 어찌 임금님 마궁간의 말이 되어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언제나 국사가 계신 곳을 따라다니며 문장을 토론하더니, 국사가 돌아가시자 「행록(行錄)」 열 권을 지었는데, 김시중(金侍中)이 그것을 모아서 비문(碑文)을 만들었다. 서호(西湖)의 견불사(見佛寺) 주지가 되었으나, 거처하는 방이 고요하고, 단지 자리 만한 청석(青石) 한 잎을 깔고 때때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흥을 풀었다. 시중(侍中)이 공무(公務)를 끝낸 뒤에 나귀를 타고 자주 찾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도(道)를 담론했다. 임금께서 평소에 그 명성을 듣고 내도량(內道場)에 맞아들이니, 화엄보전(華嚴寶典)을 강론했다. (임금께서) 백금(白金)을 매우 많이 하사하셨는데, 대사는 사탕 일백(一百) 덩이를 사서 거처하는 방 안팎에 늘어놓는데에 (그것을) 다 써버렸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것은 내가 평생 좋아하는 것인데, 만약 명년 봄에 장사배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하겠소” 하고 대답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정직하고 솔직함에 웃었다.)

이 이야기는 고려 고종(高宗) 7년(1220년) 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sup>8)</sup>

- 7) 西湖僧惠素 該內外典 尤工於詩 筆跡亦妙 常師事大覺國師爲高弟 國師勸令赴僧選對曰 我豈天廐馬也 試其步驟哉 常隨國師所在討論文章 國師歿 撰行錄十卷 金侍中據取之以爲碑 住西湖見佛寺方丈 閑然 唯畜青石一葉如席大 時時揮灑以遺興 侍中納政後 騎驢數相訪 竟夕談道 上素聞其名 邀置內道場 講華嚴寶典 賦白金至多 師盡用買砂糖百餅 列于所居內外 人問其故 曰 是吾平生嗜好 儻明春商舶不來 則願何以求之 聞者皆笑其真率(이인로(李仁老), 『파한집(破閑集)』(중권(中卷))).
- 8) 이 책이 최초로 간행된 것은 지어진 것으로부터 40년이 지난 고려(高麗) 원종(元宗) 원년(1260년) 3월로 알려져 있다. 『파한집(破閑集)』의 밤문(跋文) 끝에 ‘경신년(庚申年) 3월에 엘자(孽子)인 각문지후(閑門祇候) 세황(世黃)은 삼가 쓴다[庚申三月日孽子閑門祇候世黃謹誌]’라고 했는데, 이 경신년은 서기 1260년이다 (이상보(李相寶) 역, 『한국명저대전집 破閑集·補閑集·櫟翁碑說』(대양서적, 1975), 17~18면 참조).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闊集)』에 실린 것이다. 당대에 유명했던 혜소(惠素)라는 스님의 일화인데, 이 이야기에서 당대 식자소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많은 백금(白金)을 사탕을 사는 데에 몽땅 써버린 스님이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년에 혹시 장사배가 오지 않아서 사탕을 살 수 없을까봐 올해 몽땅 사버리고 말았다고 했다는 대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었을 것이다. ‘듣는 사람이 모두 웃었다[聞者皆笑]’라는 마지막 부분의 설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설명은 후대 소화들의 전형적 결구(結句)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인로의 『파한집』은 시화집(詩話集)이지 순수 소화집(笑話集)은 아니다. 『파한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시화(詩話)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소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sup>9)</sup> 이렇게 『파한집』이 소화(笑話)가 아니라 시화(詩話)를 지향했다는 사실은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전략(前略)>…… 우리 본조(本朝)는 변경(邊境)이 봉래(蓬萊)·영주(瀛洲)와 접해 있어 옛날부터 신선의 나라라 하였다. 그 영이(靈異)한 것을 모으고 빼어난 것을 길러온 지 五백 년이 되었다. 중국에다 아름다운 것을 나타낸 사람으로 학사 최고운(崔孤雲)이 앞에서 선창하고 참정(參政) 박인량(朴寅亮)이 뒤에 화답하여 명유(名儒)와 운승(韻僧)이 세영(題詠)에 공교하여 명성을 이역(異域)에 떨친 사람이 대대로 있었다. 우리들이 수복해서 후세에 친하지 않는다면 없어져서 전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하고, 드디어 중외(中外)에서 제영(題詠)한 본받을 만한 것을 거두어서 엮어 정리하여 세 권을 만들어 파한(破闊)이라 했다. 또 동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한(闊)이라는 것은 대개 공명(功名)을 이루고 수레를 녹야(綠野)에

9) 황인덕은 『파한집(破闊集)』 가운데 소화성을 비교적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은 대여섯 편이 있다고 했다(황인덕, 앞의 책, 49면).

달아 매어 마음속에 외모(外慕)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산림(山林)에 은둔하여 배고프면 먹고 곤하면 자는 사람이라야 그 한가한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눈을 이 책에 불인다면 온전히 한(閑)을 깨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진로(塵勞)에 시달리고 명환(名宦)에 끌물하여 염량(炎涼)에 따라 동분서주하다가 하루 아침에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외모는 한가한 것 같으나 마음속은 뒤풀을 것이니, 이는 역시 한가한 것이 병(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눈을 불인다면 또한 한가한 테서 오는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보다 더욱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니, 당시에 듣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후략(後略)>……<sup>10)</sup>

이 인용문은 이인로(李仁老)의 일자(孽子)였던 이세황(李世黃)이 『파한집』의 간행에 즈음하여 쓴 발문(跋文)의 한 대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인로가 『파한집』의 저작 동기를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인로는 『파한집』에다 서문이나 발문을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작 의도는 이 발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록 40년의 시차(時差)는 있다 할지라도, 이세황이 아버지인 이인로의 글들을 난리통에도 싸 가지고 다니면서 소중히 보존하고 한 자(字)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근심했다는 언급으로 보아, 이 발문의 내용은 이인로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리라고 짐

10) ……<전략(前略)>……我本朝境接蓬瀛 自古號爲神仙之國 其鍾靈毓秀間生五百 現美於中國者 崔學士孤雲唱之於前 朴參政寅亮和之於後 而名儒韻釋 工於題詠 聲馳異域者 代有之矣 如吾輩等 苟不收錄傳於後世 則堙沒不傳決無疑矣 遂收拾中外題詠可爲法者 編而次之爲三卷 名之曰破閑 又謂儕輩曰 吾所謂閑者 盖功成名遂懸車綠野 心無外慕者 又遁跡山林飢食困眠者 然後其閑可得而全矣 然寓目於此 則閑之全可得而破也 若夫汨塵勞役名宦 附炎借熱 東驚西馳者 一朝有失 則外貌似閑而中心洶洶 此亦閑爲病者也 無寓目於此 則閑之病亦可得而醫也 若然則不猶愈於博奕之賢乎…… <후략(後略)>……(이인로(李仁老), 『파한집(破閑集)』 하권(下卷) 발문(跋文). 번역 및 원문은 이상보(李相寶) 역, 『한국명지대전집 破閑集·補閑集·樸翁稗說』(대양서적, 1975) 122~125면과 전형내, 『한국고전비평연구』(책세상, 1987) 21~22면을 참조했다).

작할 수 있다. 인용문에 따르면, 『파한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뛰어난 시(詩)들이 인멸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직접적인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부수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을 깨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전자(前者)에 있었고, 후자는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장기나 바둑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논어(論語)』의 말까지 인용하기는 했지만, 이세황의 발문에 나타난 『파한집』의 일차적 저작동기는 역시 뛰어난 우리 시들이 인멸되는 것을 막는다는 데에 있었지 소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래서 『파한집』은 시화(詩話)를 중심에 놓았으며, 소화(笑話)에 대해서는 그 시화의 일부로서 제한적인 관심밖에는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소화라는 측면에서는 『파한집』에서는 식자소화의 징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고려 고종(高宗) 41년(1254년)에 최자(崔滋)가 쓴 『보한집(補閑集)』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파한집(破閑集)』을 보완하라는 최이(崔怡)의 명(命)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밝히고 있는 이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3>

.....<전략(前略)>..... 우리 고려(高麗)는 인문(人文)으로써 교화가 이룩되어 어질고 뛰어난 인물이 뒤따라 나와 교화를 도와 선양했다. .....<중략(中略)>..... 한문(漢文)과 당시(唐詩)가 이리하여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금(古今)의 여러 명현(名賢)들 중에서 문집을 엮어놓은 사람은 오직 수십 명에 그쳤다. 그 나머지의 좋은 문장이나 빼어난 시구는 모두 인멸되어 버리고 전해지지 않는다. 학사(學士)인 이인로(李仁老)가 그런 시문(時文)을 대강 모아서 책을 엮어 『파한집(破閑集)』이라고 이름했다. 진양공(晉陽公)이 그 책에 수록한 범위가 넓지 않다고 하여 나에게 그 책을 이어어서 보완하라고 명했다. 그래서 없어져 잃어버린 나머지를 억지로 주워모아 근

체시(近體詩) 몇 연(聯)을 얻었다. 간혹 심지어는 스님이나 아녀자에게서도  
가히 웃음거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 시(詩)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함께 그것을 기록한다. ……<후략(後略)>……<sup>11)</sup>

이 인용문은 『보한집』 편찬의 기본 목적이 우리 문인들의 뛰어난 문장  
과 빼어난 시구들이 인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파한집』 편찬의 기본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  
한집』에는 『파한집』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 수록기준이 명시적으  
로 하나 더 덧붙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웃음거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이라는 또다른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최자(崔滋)는 『보한집』에  
실을 작품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인들의 뛰어난 문장과 시구’라  
는 기준 이외에, ‘웃음거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이라는 또다른 기준을 설  
정해서 이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최자가 소화(笑話)의 독자  
적 가치에 대해 이인로(李仁老)보다 진전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보한집』에는 식자소화에 해당하는 이야  
기가 몇 편 수록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 <4>

최문헌공(崔文憲公)이 과거를 관장할 때, 십사(十四) 명을 뽑았다. 그 중  
에서 을과(乙科)에 급제한 김무체(金無滯) · 이종현(李從現) · 홍덕성(洪德成)  
세 사람은 같이 상서(尚書)가 되었고, 이상정(李象廷) · 최상(崔尙) · 최유부  
(崔有孚)는 서로 뒤를 이어 첨정(忝政)이 되었고, 김숙창(金淑昌) · 김정(金

11) ……<전략(前略)>…… 我本朝人文化成 賢儕間出 贊揚風化 ……<중략(中略)>……  
漢文唐詩於斯爲盛 然而古今諸名賢編成文集者 唯止數十家 自餘名章秀句皆堙沒無聞  
李學士仁老畧集成編 命曰破閑 晉陽公以其書未廣 命予續補 強拾廢忘之餘 得  
近體若干聯 或至於浮屠兒女輩 有一二事可以資談笑者 其詩雖不嘉 幷錄之……<후  
략(後略)>……(최자(崔滋), 「보한집서(補閑集序)」, 『보한집(補閑集)』 상권(上卷)).

正) · 김양지(金良贊) · 오학린(吳學麟)은 모두 학사(學士)가 되니, 세상에서 는 이들을 상서방(尙書榜)이라고 불렀다. 대강(大康) 구년(九年) 계해(癸亥)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자현(李賚玄) · 좌여(郭輿)는 모두 관직을 버리고 처사(處士)가 되니, 이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처사방(處士榜)이라고 불렀다. 어떤 익살스러운 스님이 과거보는 선비들에게 회통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상서방(尙書榜)을 할 것이지, 처사과(處士科)에 오르지는 말 것이다”라고 했다.<sup>12)</sup>

## &lt;5&gt;

칠양사(漆陽寺)의 스님인 자림(子林)은 어리석기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서울에 놀러왔다가 임진강(臨津江)을 건너 돌아가는데, 중류(中流)에서 언급이 하얀 어떤 사미승(沙彌僧)이 다른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고 있었다. 마음 속으로 가만히 그를 좋아해서, 건너 뛰어도 거리가 멀어 미치지 못할 줄은 모르고 몸을 날렸다가 강 속으로 빠졌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죽었다고 알리자, 문인(門人)들이 재(斎)를 베풀고 명복을 빌었다. 삼칠일(三七日)이 지났는데 어느날 저녁 홀연히 자림이 돌아왔다. 문인들이 놀라워하게 여겨 까닭을 물었더니, 사람이 말하기를, “물에 빠져 밑바닥이 닿길래 다시 떠올랐더니, 마침 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배 위의 사람들이 끌어올려 살려 주었다. 나와서 사미승이 간 끗을 물어 뒤쫓아서 삼각산(三角山) 계성사(啓聖寺)에 이르렀다. 들어가 만나보니 기쁨이 너무 커서 차마 그대로 돌아 올 수 없기에 이십일(二十日)을 머물다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배를 쥐고 웃었다. 또 달밤에 두꺼비가 뜰에 나왔는데, 스님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다. 자림(子林)이 나중에 와서는 묻기를, “이것이 무슨 별레인가?”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속여서 말하기를, “우리 땅에는 이 별레가 없다. 근래에 송나라에서 온 상인에게서 산 것인데, 기르려고 풀어놓

12) 崔文憲公典試 所貢十四人 乙科三人 金無滯 李從現 洪德成 同拜尙書 李象廷 崔尙 崔有孚 相繼爲忝政 金淑昌 金正 金良贊 吳學麟 並爲學士 世號尙書榜 大康九年癸亥 同榜無達官 李賚玄 郭輿 皆棄官爲處士 時號處士榜 有一滑稽僧戲舉子云須占尙書榜 休登處士科(최자(崔滋), 『보한집(補閑集)』 상권(上卷)).

았을 뿐이다. 비록 두꺼비와 비슷하나 두꺼비는 아니다. 스님께서 사서 키우면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사람이 은사발을 주고 그것과 바꾸었더니, 종자(從者)가 말하기를, “이것은 두꺼비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사셨습니까?”라고 했다. 사람이 말하기를, “망령된 말로 내 일을 막지 말아라”라고 하고는, 곧 쪽대로 묶어서 가지고 갔다. 시랑(侍郎)인 정자직(鄭子直)이 이를 듣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속된 벼룻이 해마다 간교해지니/ 하늘이 어리석은 사람을 인간에 보이셨네/두꺼비를 사고, 물에 뛰어든 일은 비록 우스우나/벗을 사랑하고, 재물을 가벼이 함은 뜻이 가히 봄직하네 //”라고 했다.<sup>13)</sup>

인용문 <4>는 함께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가운데 고위 관리가 많이 배출된 과거를 세상에서 상서방(尙書榜)이라고 하고, 반대로 고위 관리가 전혀 배출되지 못한 과거를 세상에서 처사방(處士榜)이라고 부르는 데에 대해, 어떤 익살스러운 스님이 과거 보는 선비들에게 상서방이 되지 처사방은 되지 말라고 우스개소리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식자소화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떤 익살스러운 스님이 과거보는 선비들에게 희롱하여 말하기를[有一滑稽僧戲舉子云]’이라는 작품 안의 설명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골계(滑稽)’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보한집(補閑集)』이 ‘골계전(滑稽傳)’을 표방하고 있지

13) 漆陽寺僧子林愚駭不可言 來遊京都還渡臨津 中流見一白面沙彌寄他船而先渡者 心竊喜之 比下 度其不及 不覺前之遠也 謄身超之投江而沒 偕去人歸以死報 門人設齋追薦 過三七日 忽一夕子林來至 門人怪而問之 子林云 溺至底浮出 適有船過 船上人拯而活之 出訖 問沙彌所之 追至三角山啓聖寺 入見喜甚不忍捨去 留二十日而來 人聞之絕倒 又月夜蟾出於庭 僧徒聚觀之 子林後至曰 是何虫也 紿曰 此土無此虫 近有人從宋商家就買 欲畜之來放耳 雖類蟾非是 師可買畜而覩 子林以銀盂易之 從者曰 此蟾也 何以買爲 子林曰 母妄言沮我 卽以蒿裏之去 鄭侍郎子直聞之作詩 曰 俗習年來尙巧姦 天教癡絕示人間 買蟾投水雖堪笑 愛友輕財意可觀(최자(崔滋), 『보한집(補閑集)』 하권(下卷)).

는 않지만, 골계라는 단어가 작품 속에서나마 등장한 것은 우리 소화사(笑話史)의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간혹 심지어는 스님이나 아녀자에게서도 가히 웃음거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 시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함께 그것을 기록한다[或至於浮屠兒女輩有一二事可以資談笑者其詩雖不嘉并錄之]’<sup>14)</sup>라는 기록자의 의도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파한집』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수록기준이다.

인용문 <5>는 자림(子林)이라는 어느 어리석은 스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서가는 나룻배에 타고 있는 어느 사미승(沙彌僧)을 보고는 마음에 들자 앞뒤 분별없이 그 배에 옮겨타려고 뛰어건너려다가 물에 빠지고, 구사일 생으로 살아나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그 사미승만 찾으러 삼각산(三角山)까지 가서 이십일(二十日)이나 있다가 태연하게 돌아왔다는 것이나, 두꺼비도 몰라보고 그것을 은주발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정상적인 지적 수준의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후대의 소화집들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보한집(補閑集)』에는 골계(滑稽)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웃음거리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뚜렷한 의식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파한집(破閑集)』보다는 소화(笑話)에 대한 진전된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실제 수록작품의 뚜렷한 질적 향상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록된 소화 작품의 양에서도 『파한집(破閑集)』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황인덕은 “기본적으로 저서의 성격이 흡사한데다, 시기상으로도 거의 동시대였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14) 최자(崔滋), 「보한집서(補閑集序)」, 『보한집(補閑集)』 상권(上卷). 앞의 주 11) 참조

있을 것이다”<sup>15)</sup>라고 했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자소화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은 고려(高麗) 충혜왕 3년(1342년)에 이제현(李齊賢)이 지은 『역옹패설(櫟翁稗說)』에 나타난다. 이 책은 사화(史話), 시화(詩話), 시사(時事) 등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잡기류(雜記類)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식자소화로 분류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상당수 있다. 『역옹패설(櫟翁稗說)』에 실린 소화(笑話)의 화수에 대해, 조수학(曹壽鶴)은 구체적 작품을 제시하지는 않은채 19편이라고만 했고,<sup>16)</sup> 황인덕(黃仁德)은 전집(前集) 후반부에 실린 ‘李侍中延壽當國 高王將行釋氏延壽神王道場……’부터 ‘崔拙翁瀋使酒佯狂……’까지의 작품을 적시하고 17편이라고 했는데,<sup>17)</sup> 아무튼 이 정도의 숫자는 『파한집(破閑集)』이나 『보한집(補閑集)』에 실린 소화에 비해 그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임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적 증가 외에도 『역옹패설』에는 소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관심과 견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역옹패설』의 「후집서(後集序)」에 잘 나타나 있다.

#### <6>

손님이 역옹(櫟翁)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가 전집(前集)에서 기술(記述)한 바는, 조종세계(祖宗世系)의 먼 내용과 이름난 공경(公卿)의 언행(言行)도 그 속에 자못 많이 실려 있으나, 골계(滑稽)의 말로 끝을 맺었다. 후집(後集)의 기술에는 경사(經史)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은 몇 편 없고, 모두가 장구(章句)를 조탁진각(彫琢篆刻)한 내용뿐이니, 어찌 그에 대한 특별한 조심이 없었는가? 이것이 어찌 단아(端雅)한 선비와 씩씩한 장부(丈夫)가 의당 해야 할 일이겠는가?”라고 했다.

15) 황인덕, 앞의 책, 54면.

16) 조수학, 「골계전연구(滑稽傳研究)」, 『국문화연구총서7 한문학연구(漢文學研究)』, 정음문화사, 1985. 282면.

17) 황인덕, 앞의 책, 58면.

내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등등 북을 친다[坎坎擊鼓]’라는 것이 『시경(詩經)』 「폐풍(北風)」에 있고, “너울너울 춤을 춘다[屢舞婆娑]”라는 것이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있다. 하물며 이 책은 본래 무료(無聊)하고 담담함을 몰아내기 위해 붓 가는 대로 죽죽 쓴 것이니, 우스개꺼리가 있은들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공자(孔子)께서는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도 아무 곳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현명한 일이라고 하셨다. 장구(章句)를 가다듬는 일은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지 않았다면 이름을 폐설(稗說)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중사(仲思)가 서문으로 썼다.<sup>18)</sup>

이 인용문은 『역옹폐설』 전집(前集)이 골계(滑稽)로 끝을 맺었고, 후집(後集)에는 장구를 조탁전각한 내용뿐이라는 손님의 힐책에 대해 익재(益齋)가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작자가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은,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태평한화골계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 기법일뿐 실제로는 양쪽의 주장이 다 필자 자신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익재가 이 책 전집의 후반부를 골계로 끝을 맺은 것이나, 후집을 장구를 조탁전각한 내용으로 채운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골계(滑稽)’라는 단어가 익재의

18) 客謂樸翁曰 子之前所錄述 祖宗世系之遠 名公卿言行 頗亦載其間 而乃以滑稽之語 終焉 後所錄 其出入經史者無幾餘 皆雕篆章句而已 何其無特操耶 豈端士丈夫所宜爲也 答曰 坎坎擊鼓列於風 屢舞婆娑編乎雅 約此錄也 本以驅除閑閑 信筆而爲之者 何怪夫其有戲論也 夫子以博奕者爲賢於無所用心 雕篆章句 比諸博奕 不猶愈乎且不如是 不名爲稗說也 仲思序(원문은 이상보(李相寶) 역, 앞의 책 355~356면에 따랐고, 번역은 같은 책, 같은 면을 참조했다).

19) 이 문제와 관련하여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는 박경신, 앞의 서문, 앞의 책, 237~242면 참조

주장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한집(補閑集)』에도 골계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있었다. 그러나 『보한집(補閑集)』의 경우에는 작품 속에 이 단어가 나타났을 뿐 책 전체나 일정 부분의 내용이 그것을 지향한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역옹패설』에서는 전집의 후반부에 의도적으로 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었음을 익재(益齋)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무료(無聊)하고 답답함을 물아내기 위해 붓 가는 대로 죽죽 쓴 것’이라는 언급과 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것은 익재(益齋)가 소화의 문학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파한집(破閑集)』과 『보한집(補閑集)』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소화에 대한 인식의 짹이 훨씬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진전은 작품 수준에도 반영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들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lt;/&gt;

시중(侍中) 이연수(李延壽)가 국정(國政)을 맡고 있었는데, 고종(高宗)이 장차 불교의식(佛教儀式)인 연수신왕도량(延壽神王道場)을 거행하고자 하여 도당(都堂)에 문부하여 그 경비를 지출하게 했다. 도당(都堂)의 관리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다만 신왕도량이라고만 일컫고, 시중의 이름과 같은 연수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하였다. 그런데 공이 “이번에 거행하려는 도량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일컫는가?” 하고 물으니, 관리가 그 전에 생각한 일은 잊어버리고 엉겁결에 말하기를, “이연수 신왕도량이라고 합니다”고 했다. 이 공(李公)이 말하기를, “도량에도 성(姓)이 있느냐?”고 하였다.<sup>20)</sup>

20) 李侍中延壽當國 高王將行釋氏延壽神王道場 勅下都堂支其費 堂吏私計曰 但可稱  
神王道場 不犯侍中名耳 及公問道場之名 吏忘其前計 謂曰 李延壽神王道場 公曰  
道場亦有姓乎(번역 및 원문은 이상보(李相寶) 역, 앞의 책 355~356면에 따랐다).

인용문 <7>은 『역옹패설』 전집(前集)의 제 28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부터 『역옹패설』 전집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소화(笑話)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는 연수신왕도량이라는 불교의식의 경비 지출을 맡은 관리가 상관(上官)인 시중(侍中)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를 내용으로 한, 일종의 치우담(痴愚譚)이라고 할 수 있다. 상관의 이름에 들어 있는 ‘연수(延壽)’라는 말을 범(犯)하지 않아야겠다고 잔뜩 긴장하고 있던 도당 관리가 정작 대답을 해야 할 자리에서는 엉겹결에 시중의 성(姓)인 ‘이(李)’까지 덧붙여서 ‘이연수신왕도량’이라고 답하고 만 것도 우습지만, 그 대답에 한 술 더 떠서 ‘도량에도 성(姓)이 있느냐?’라고 한 시중의 물음이 더 큰 웃음을 자아낸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긴장하다가 도리혀 더 큰 실수를 범하고 만 역설적인 상황과, 그러한 하급 관원의 실수를 익살스럽게 받아넘긴 시중의 말을 통해서 식자소화가 지향했던 ‘부담감 없는 웃음’<sup>21)</sup>의 전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파한집(破閑集)』이나 『보한집(補閑集)』에 실렸던 이야기가 단발성(單發性) 웃음의 유발에 그쳤다면, 『역옹패설』에 실린 이 이야기는 하급 관원의 실수로 유발된 웃음이 시중의 익살스러운 말로 인해서 더큰 상승효과를 거두는 이중적(二重的)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옹패설』은 그 자체가 순수한 소화집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골계적 이야기의 문학적 효용성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일부 수록하기는 했지만, 『역옹패설』은 전체적으로는 잡기류로 분류되어야 할 책이다. 다시 말하면 익재(益齋)는 소화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 인식이 순수소화집을 만들 정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소화를 ‘무료(無聊)하고 답답함을 물아내기 위한, 잡기 가운데의 한 가지 유형’ 정도

21) 조수학이 사용한 용어이다(조수학, 앞의 논문, 앞의 책, 283면).

로 이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역옹패설』이라는 잡기류 책을 저술하는 가운데 소화에 대해 한 부분을 할애하는 선에서 그쳤던 것이다.

『역옹패설(櫟翁稗說)』에서 잡기 가운데 한 유형으로 인식되었던 소화가 그 자체만의 독자적 의미를 확보하고, 그 결과 순수소화집으로 나타난 것이 서거정의 『태평한화풀계전』이다. 따라서 『태평한화풀계전』은 『파한집(破閑集)』과 『보한집(補閑集)』에서부터 싹터서 『역옹패설』에 와서 그 인식과 영역을 크게 확장한 식자소화라는 갈래가 완전히 하나의 독자적 가치를 확보하고 독립된 저술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데에 일차적 의의가 있다.

『파한집(破閑集)』에는 ‘풀계(滑稽)’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한집(補閑集)』에는 앞의 인용문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품 속에 이 단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소화라는 갈래나 그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역옹패설』에는 이 단어가 「후집서(後集序)」에 나타났는데, 이에는 갈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담겨 있고, ‘무료(無聊)하고 답답함을 물아내기 위해서’라는 효용성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옹패설』은 그 자체가 순수소화집을 지향하지는 않았고, 잡기류의 저술 가운데 식자소화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그침으로써 ‘풀계전(滑稽傳)’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태평한화풀계전』은 그 제목에서 ‘풀계전(滑稽傳)’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결과 순수소화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 문학사를 통해서 책의 제목에서 ‘풀계전’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태평한화풀계전』밖에 없는데, 그것은 서거정이 식자소화에 대해 그만큼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거정의 인식은 그가 직접 쓴 「태평한화풀계전서(太平閑話滑稽傳序)」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8>

손님 가운데 책망(責望)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그대의 읽은 바가 무슨 책인가? 업(業)으로 한 바는 무슨 일인가? 조정(朝廷)에 선 지 장차 사십년(四十年)이 되려 하고, 대각(臺閣)을 누루 밟아 육조(六曹)의 우두머리와 의정부(議政府)의 아상(亞相)을 지냈으니, 벼슬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아직 일찍이 계책(計策)을 꾀하고 충성(忠誠)스러운 마음으로 임금께 사뢰어 그 건의(建議)한 것이 시행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한 사마천(司馬遷)이나 반고(班固), 유항(劉向), 양웅(揚雄) 같은 사람들이 한 바와 같이, 책을 저술하여 말을 세웠다[立言]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낱 잔달스럽고 맹랑한 것을 주워 모아 읽어서 호사가(好事家)들의 턱이나 빠지게 하는 것은 배우(俳優)의 장기(長技)일 따름이다. 세속(世俗)의 교화(教化)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또한 그대는 평생 맑게 몸을 닦고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절개를 지켰으며, 얼음이나 송검초 같은 지조(志操)가 있더니, 요즈음에 들어 자그마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화(禍)에 빠져 놀란 티끌과 물결이 헤아리기 어려운 곳에서 갑자기 일어나니, 뭇 비방(誹謗)이 떨쳐 일어나고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이 하면서 우물에 빠뜨리고 돌을 내리 구르려고 한다.

이질고 성스러운 임금께서 위에 계시고 지극히 밝은 빛이 옆에서 비추니, 죽든 살든 빠가 남든 살이 남든,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본성(本性)을 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괴이한 곳으로 달려가며 기이한 것을 찾는 것은 오직 가려운 것을 긁는 재주일 뿐이다. 옛날 열어구(列禦寇)와 장주(莊周)는 도(道)를 드리님이 정밀하고 세속(世俗)을 미워함이 깊어, 괴이(怪異)하고 과격한 언사(言辭)와 괴벽하고 기발한 글을 지어내어 변화를 고무(鼓舞)하고 준수한 기상을 물결치게 했지만, 간혹 터무니 없고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설(說)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문(聖門)에 죄를 얻었던 것이다. 대개 장자(莊子)와 열자(列子)는 성문(聖門)의 죄인(罪人)이요, 그대는 곧 장자와 열자의 죄인이다. 내 그대를 위해 이것을 취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다.

거정(居正)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굴빛을 고치고 말하기를,

“그대의 말씀이 옳도다. 그러나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우스개소리를 잘 하신다.”라는 말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도 한 번 당겼다 한 번 늦추었다 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제해(齊諧)가 『남화(南華)』에 기록되어 있고, 골계(滑稽)<sup>22)</sup>는 『반사(班史)』<sup>23)</sup>에 열전(列傳)이 있다. 거정(居正)이 이 전(傳)을 처음에, 처음부터 후세(後世)에 전하려는 데에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한 것이다. 대개 이에 돌아갈 뿐이다. 하물며 공자(孔子)께서도 장기나 바둑을 하는 것도 마음을 아무 곳에도 쓰지 않는 것보니는 낫다고 하셨다. 이것 또한 나 서거정이 아무 곳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했다.

손님은 웃고 가버렸다.<sup>24)</sup>

- 22) 골계(滑稽). 「골계 전(滑稽傳)」. 「골계열전(滑稽列傳)」.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열전(列傳)」에 있는 편명(篇名)인 「골계열전(滑稽列傳)」을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 「열전(列傳)」은 모두 칠십 전(七十傳)인데, 이들은 자객(刺客) · 순리(循吏) · 유림(儒林) · 혹리(酷吏) · 유협(游俠) · 영행(佞幸) · 골계(滑稽) · 일자(日者) · 구책(龜策) · 화식(貨殖)의 열 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골계열전(滑稽列傳)」은 이 열 개 항목 중 일곱째인데, 사마천은 그 서(序)에서, “세속에 흐르지도 않고 권세와 이욕(利慾)을 다루지도 않고 위아래로 막히어 머무름이 없이 아무에게도 해를 입지 않았으니, 그것은 도(道)의 작용과 같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순우곤(淳于髡) · 배우(俳優)였던 맹(孟) · 배우(俳優)였던 선(施) · 꽈사인(郭舍人) · 동방삭(東方朔) · 동파선생(東郭先生) · 왕선생(王先生) · 서문표(西門豹)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 23) 『반사(班史)』. 반고(班固)가 지은 역사책이라는 뜻으로 『한서(漢書)』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후한(後漢) 부풍안릉(扶風安陵) 사람인 반고(班固)가 『한서(漢書)』를 지었기 때문이다.
- 24) 客有誚者曰 子之所讀何書 所業何事 立朝將四十年 践歷臺閣 長六部 亞巖廊 官非不達 曾不聞謀猷啓沃 建白設施 又不聞著書立言 如馬如班如劉如楊者之所爲 徒屑屑焉 捲拾孟浪 為好事者解頤 此則俳優之雄長耳 何補於世教乎 且子平生 清修苦節 水蘖其操 頃以繼介無忘之災 驚塵駭浪 猋起於不測之地 衆謗叢起 旁午雜遝 如恐不及 墮井而下石焉 賴仁聖在上 至明旁燭 生死而肉骨之 曾不動心忍性 駟怪聘

이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이 글이 익재(益齋)의『역옹패설』「후집서(後集序)」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금방 드러난다. 손님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선명히 드러내는 방법이 그렇고, 손님의 비방에 대해 변명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는 방법도 동일하며,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인용한『논어(論語)』의 구절까지 일치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서거정의『태평한화골계전서(太平闡話滑稽傳序)』는 익재(益齋)의『역옹패설』「후집서(後集序)」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서거정이 말한 바 ‘다만 세상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한 것이다’라는 이 책의 저술 동기 역시 ‘무료(無聊)하고 답답함을 물아내기 위해 붓 가는 대로 죽죽 쓴 것’이라는 익재의 주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결국 말해서 서거정의『태평한화골계전』은 그 기본인식에 있어서 익재의『역옹패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거정의『태평한화골계전』이 익재의『역옹패설』을 깊이 의식하고 써어졌다는 것은 강희맹(姜希孟)이 쓴『골계전서(滑稽傳序)』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 &lt;9&gt;

……<전략(前略)>……우리 동방(東方)의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께서는 북(北)으로 중원(中原)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름이 한 세상에 무거웠으나『역옹패설(櫟翁稗說)』을 지으셨는데, 보는 사람들이에서 문학이 넉넉

奇 惟技是癢 昔列聖寢莊周 見道精憤世深 作為詭激之辭 奇崛之文 鼓舞變化 動盪  
發越 間以無稽不經之說 猶得罪於聖門 盖莊列聖門之罪人 而子則莊列之罪人 吾爲  
子不取 居正矍然 改容謝曰 子之言是也 然子不聞 善戲謔兮 文武弛張之道乎 齊諧  
志於南華 滑稽傳於班史 居正之作是傳 初非有意於傳後 只欲消遣世慮 聊復爾耳  
況孔聖以博奕 爲賢於無所用心者 此亦居正無所用心之自戒爾 客笑而去(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서(太平闡話滑稽傳序)』, 원문은 일사본(一叢本)에 따랐고, 번역  
은 필자가 한 것이다(박경신,『대교·역주(對校·譯註) 태평한화골계전(太平闡話  
滑稽傳) 1』, 국학자료원, 1998. 33~46면 참조)).

25)『논어(論語)』의 이 구절은『파한집』의 저작동기를 언급한 부분에 나타났으나,『보한집』의 저작동기를 언급한 내용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함을 마음으로 감복하였고, 흘러 넘치고 함부로 흘렸지만 다른 의론이 없었다. 선생은 왜 이 책이 뛰어난 명성에 누(累)가 될 것을 염려하시는가? 이 책을 보게 되는 후대 사람으로 만약 영(郢)나라 사람이 쓴 것을 연(燕)나라 사람이 이해한 것<sup>26)</sup>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퀴 깍는 것과 창랑가(滄浪歌)의 이치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니, 이것이 단지 웃음거리를 주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후략(後略)>……<sup>27)</sup>

26) 영(郢)나라 사람이 쓴 것을 연(燕)나라 사람이 이해한 것. 영인서이연인해(郢人書而燕人解). 영(郢)나라 사람의 글 가운데의 문구를 연(燕)나라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설명했으나 연나라에서는 그것을 다스림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고사(故事)로 ‘영서연설(郢書燕說)’이라고 한다. 『한비자(韓非子)』 「외저설좌장(外儲說左上)」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영(郢)나라 사람으로 연(燕)나라의 재상(宰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다. 밤에 글을 썼는데, 불이 밝지를 못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촛불을 높이 들어라.”하고 말하고는 쓰고 있는 편지에다가도 “촛불을 높이 들어라.”라고 썼다. 그러니 “촛불을 높이 들어라.”라는 것은 본래는 편지에 쓰려는 뜻이 아니었다. 연나라 재상이 편지를 받고는 그것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촛불을 높이 들어라.”라는 것은 밝음을 송상하라는 것이다. “밝음을 송상한다.”는 것은 어진 이를 발탁해서 그에게 소임을 맡기라는 뜻이다.”라고 하고는, 그 연나라 재상은 그것을 왕에게 말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고 그것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잘 다스렸는데, 그것은 편지의 본래 뜻은 아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학자들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들이 많다[郢人有遺燕相國書者 夜書火不明 因謂持燭者曰 舉燭云而過書燭舉 舉燭非書意也 燕相受書而說之曰 舉燭者 尚明也 尚明也者 舉賢而任之 燕相白王 王大說 國以治 治則治矣 非書意也 今世學者多似此類].

또한 강희맹(姜希孟)의 「촌담해이자서(村談解頤自序)」에는 “일이 비록 비리하다 해도 연(燕)나라 사람의 편지를 영(郢)나라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 물가(不可)하겠는가?[事雖鄙俚 燕書而郢說之 何有於不可].”라고 해서 이 영(郢)과 연(燕)을 뒤집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현설화전집(韓國文獻說話全集)』(제 7권), 1981. 71면).

27) ……<전략(前略)>……吾東方益齋文忠公 北學中原 名重一世 著櫟翁碑說 觀者心服益齋富於文學 演溢橫流 而無異議 先生何慮是篇之有累盛名哉 使後之觀是篇者

이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강희맹은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을 익재의 『역옹패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저술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서거정의 명성에 누(累)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sup>28)</sup> 이는 결과적으로 강희맹도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이 익재의 『역옹패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태평한화골계전』이 소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역옹패설』을 깊이 의식하고 써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역옹패설』을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파한집』이나 『보한집』을 답습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태평한화골계전』이 『역옹패설』이나 『파한집』, 『보한집』과는 기본적인 체제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서거정은 『동인시화(東人詩話)』,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필원잡기(筆苑雜記)』라는 세 가지의 설화관계 독립 저술을 남겼다. 『동인시화』 원본은 성종 5년(1474년)에 지어져서 성종 8년(1477년) 경에 간행된 것이고, 『태평한화골계전』 원본은 성종 8년(1477년)에 지어져서 성종 13년(1482년) 경에 간행된 것이고, 『필원잡기』 원본은 지어진 연대는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간행된 것은 성종 18년(1487년) 경이고 짐작하건대 지어진 연대도 이 무렵에서 크게 앞서지는 않았을 것 같다. 따라서 이 세 책은 서거정의 나이 55세부터 죽기 1년 전인 그의 나이 68세까지 사이에 지어지

若如鄖人書而燕人解 則斷輪滄浪之理 亦可因此而推之 不但付之嘻笑而已也……<후략(後略)>……(강희맹, 「골계전서(滑稽傳敘)」. 원문은 일사본(一叢本)에 따랐고, 번역은 필자가 한 것이다(박경신, 『대교·역주(對校·譯註)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1』, 국학자료원, 1998. 56~71면 참조)).

28) 이 경우에 강희맹(姜希孟)이 『역옹패설(櫟翁稗說)』이라고 한 것은, 『역옹패설』과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관계로 보아, 『역옹패설』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역옹패설』에 실린 골계(滑稽)에 해당하는 이야기만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 간행된 것이 되는 셈이고, 그런만큼 그의 만년의 저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어진 순서는 『동인시화(東人詩話)』→『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필원잡기(筆苑雜記)』의 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저술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의 문헌설화 자료집으로는 성현(成僕 : 세종 21년 (1439년)~연산군 10년(1504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강희맹(姜希孟 : 세종 6년(1424년)~성종 14년(1483년))의 『촌담해이(村談解頤)』 등이 있고, 이들 자료집들보다 얼마간 뒤진 시기의 것으로 송세림(宋世琳 : 성종 10년 (1479년 ~?년))의 『어면순(禦眠循)』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씩의 독립된 저술로, 서거정의 경우처럼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 저술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서거정은 조선 전기에 다양하고 많은 설화관계 독립 저술을 남긴 문인이 되는 셈이다.

『동인시화(東人詩話)』는 그 제목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대 우리 시인들의 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위로는 신라(新羅) 시대의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서거정 당대의 시인들까지의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화류<sup>29)</sup> 필기(詩話類筆記)로 분류될 수 있는 책이고,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한집(破閑集)』과 『보한집(補閑集)』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우리 역사에 관한 사실들과 보고 들은 인물들의 언행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종합류 필기(綜合類筆記)로 분류될 수 있는 책이고, 그 성격에 있어서는 『역옹패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거정은 『동인시화』와

29) 이내종(李來宗) 교수가 사용한 용어이다. 이교수는 필기집을 패설류(稗說類) : 일화(逸話) · 설화(說話), 야사류(野史類) : 사화(史話) · 전고(典故), 시화류(詩話類) : 시론(詩論) · 시평(詩評) · 작시일화(作詩逸話), 변증류(辨證類) : 경사(經史) · 명물(名物), 종합류(綜合類) : 종합적(綜合的) 성격(性格)의 다섯으로 분류하고, 『동인시화(東人詩話)』는 시화류에,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은 일화로서 패설류에, 『필원잡기(筆苑雜記)』는 종합류에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뒤에서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해 언급한 종합류라는 용어도 이교수가 사용한 용어이다(이내종, “선초(鮮初) 필기(筆記)의 전개 양상(展開樣相)에 관한 연구(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6. 45면).

『필원잡기』만으로도 고려 후기의 『파한집(破閑集)』과 『보한집(補閑集)』, 그리고 『역옹패설』의 저술 의도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동인시화』와 『필원잡기』에는 『파한집』과 『보한집』, 그리고 『역옹패설』에 실린 분량 이상의 소화들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서거정이 『태평한화골계전』이라는 순수식자소화집을 따로이 마련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점은 서거정이 『파한집』, 『보한집』, 『역옹패설』의 저자들이 소화를 시화류 필기나 종합류 필기의 한 부분 정도로 이해했던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필기류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거정은 식자소화의 가치를 더욱 깊이있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제목부터 '골계전(滑稽傳)'임을 표방하는 독립된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태평한화골계전』은 『파한집』, 『보한집』, 『역옹패설』로 이어지는 고려 후기 잡기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소화의 가치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간 서거정의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3. 결론(結論)

지금까지 서거정(徐居正)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파한집(破閑集)』, 『보한집(補閑集)』, 『역옹패설(櫟翁稗說)』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은 서거정에 의해서 어느날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고려 시대 『파한집(破閑集)』과 『보한집(補閑集)』에서 짹트고, 『역옹패설(櫟翁稗說)』에 와서 부쩍 성장한 소화에 대한 인식이 조선 전기에 와서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문학사의 일반적 전개과정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파한집(破閑集)』은 우리의 뛰어난 시들이 인멸되는 것을 막는다는 인식이 직접적 저술동기가 되었고, 파한(破閑)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파한집』은 시화(詩話)를 그 중심에 놓았고, 소화(笑話)는 그 시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되는 선에서 그쳤다. ‘골계(滑稽)’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화(笑話)가 가지는 독자적 의미를 깊이있게 인식하지는 못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소화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파한집』에서는 소화에 대한 싹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보한집(補閑集)』은 『파한집』을 보완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했고, 따라서 그 기본적 지향점은 『파한집』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화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소화라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파한집』보다 진전된 인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책에는 ‘간혹 심지어는 스님이나 아녀자에게서도 가히 웃음거리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 시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함께 그것을 기록한다[或至於浮屠兒女輩有一二事可以資談笑者 其詩雖不嘉 幷錄之]’라는, 『파한집(破閑集)』과는 또 다른 수록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소화사의 입장에서는 소화의 독자적 가치를 인식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록 작품 속에서 나마 ‘골계(滑稽)’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역옹패설(櫟翁稗說)』은 시화집(詩話集)이 아니라 잡기류로 분류될 성격의 책인데, 이 책에는 『파한집』, 『보한집』에서 보다도 훨씬 많은 식자소화가 수록되어 있고, 소화에 대해 훨씬 진전된 인식이 담겨 있다. 『역옹패설』 「후집서(後集序)」에는 ‘골계(滑稽)’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익재(益齋)가 소화의 갈래와 그 독자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소화를 ‘무료(無聊)하

고 답답함을 몰아내기 위한, 잡기 가운데의 한 가지 유형'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독립된 '골계전(滑稽傳)'을 표방하는 단체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다.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은 『파한집』, 『보한집(補閑集)』에서 짚어서, 『역옹패설(櫟翁稗說)』에 와서 부쩍 성장한 식자소화라는 갈래가 완전히 하나의 독자적 가치를 확보하고 대규모 독립된 저술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점에 일차적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역옹패설』 가운데 일부로 수용되었던 식자소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우리 문학사상 '골계전(滑稽傳)'을 표방한 최초이자 유일한 저술이 되었다. 『동인시화(東人詩話)』가 『파한집』과 『보한집』의 맥을 잇고, 『필원 잡기(筆苑雜記)』가 『역옹패설(櫟翁稗說)』의 맥을 이었다면, 『태평한화골계전』은 『파한집』·『보한집』·『역옹패설』에 각각 일부로 흩어져 수용되었던 식자소화라는 갈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부각시켜 대규모 독립된 저술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에 이르러 소화(笑話)는 시화(詩話), 사화(史話), 시사(時事) 등과 대등한 문학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